

漁父四時詞에 나타난 17세기 士林派의 江湖認識

교양과
전임강사 장 선 희

I. 緒 論

문학은 작가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처해 있던 역사적·사회적·문화적·지역적인 작가 외적인 상황과 거기에 반응하는 작가 내적인 상황이 결합되어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작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작가의 생애나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의 작품 외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작품이 배태될 수 있었던 필연성과 자의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반대로 작품의 내적 연구를 통하여 작품 밖의 외적 상황을 추적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상황들 중에서 그 작품이 처한 사회현상과 그러한 사회상을 가능하게 한 사상의 작용, 그러한 사회현상이 전반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작품의 개별적인 성격을 전체 문학의 범주 속에 끌어들이어 상호 결합관계를 맺게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17세기는 일종의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 크게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선이 되며 세분시켜서는 조선조의 중반기¹⁾에 해당되는 동시에 커다란 변혁이 시도되는 조선 후기의 태동을 준비하는 선상에 처한다. 눈에 보일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화의 요인들이 서서히 쌓여가는 시대에 당시 사회와 역사의 전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집권층인 사림들의 문예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문예의식과는 어떠한 갈등 관계에 있었는지는 17세기 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우리 국문학사에서 대단한 문학적 역량을 보여 준 孤山 尹善道를 통하여 당시의 사림들이 지닌 문예의식과 강호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사림파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림파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온 漁父歌의 총 결산인 어부사시사를 통하여 17세기 사림들이 지녔던 문예의식과 강호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¹⁾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 중권, 서울: 동명사, 1987, p.236.

II. 士林派의 文藝意識과 江湖認識

士林派란 15세기에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서 역사의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주자학의 이념을 수용한 일군의 지식인들을 지칭하는 역사학의 용어이다. 이들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파악하자면 주자학적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²⁾ 이들은 고려말의 신흥사대부들과 접맥되는데, 신흥사대부란 고려 무신기를 거치면서 세습귀족들의 몰락에 이어 등장하게 되는 지방의 향리출신으로 주자학적 이념을 생활이념으로 삼았던 새로운 지배계층을 지칭한다. 이들 고려말 이래의 사대부들은 말 그대로 고향인 향리에서는 학문하는 선비(士)요, 조정에 나아가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집권자(大夫)로서 出處를 겸비하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철저한 주자학적 지식인들이었으므로 주자학의 실천이념인 修己와 治人に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 사대부들은 이조의 건국과 함께 크게 나뉘게 되는데, 주자학적 이념을 수용하여 이조의 개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훈구파(勳舊派)와 같은 주자학적 이념으로 무장하였으나 節義精神에 투철하여 개국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와같은 정신적 맥락으로 이조 초기의 여러가지 정치 변화 가운데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사림파(士林派)로 대별된다. 사림파는 15세기 중엽부터는 당시의 집권층인 훈구파에 도전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여 몇 차례의 치열한 士禍를 거친 끝에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신라이래로 문학의 주된 담당층은 지식인계층이었는데 그들은 학자요, 정치인이요, 문인의 역할을 함께 수용하였다. 고려후기에 위와같은 주자학적 이념에 투철한 지식인들의 등장은 문학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즉, 주자학적 문예의식에 입각한 사대부들에 의해 문학은 주도되었으며 이조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화된 주자학적 문예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주자학적 문예의식이란 무엇인가? 주자학 엄밀히 말하여 성리학은 역사학³⁾이나 철학⁴⁾에서 이야기 할 때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성리학은 바로 주자학이라는 생각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주자학⁵⁾은 형이상학적 이론이 고도로 발달된 불교·노장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 반발로 本原儒學을 형이상학적으로 재구성한 신유학인만큼 이론의 측면이 매우 발달되었다. 주자학자들은 理·性·義·義理·道 등으로 표현되는 근본원리를 캐고 들어 우주·인생의 진리를 탐색하고 부단한 자기 수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儒道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주자학자들의 실천이념은 修己와 窮理를 통한 治인과 成仁에 있으므로 주자학자들의 문학도 이러한 이념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당연히 儒道를 인식하거나 구현하는데

2)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7, p.3.

3) 이가원외, 「한국학 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1, pp.270~284.

4)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 중권, pp.105~106.

5) 한국철학회편, 위의 책, p.143.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자학자⁶⁾들은 「原道の 文學」과 「緣情의 文學」 가운데서 「原道の 文學」 쪽에 서게 된다.

주자학의 창시자인 朱子는 道學을 집대성한 학자였으며 道學的 文學論을 집성한 문예이론가이기도 하였는데 그는 「文과 道」가 분리되어 서로 괴리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였다. 「文以載道」론적 문학론은 도학적문학관의 가장 근본이 되어, 道는 文의 근본이 되며, 文은 道의 枝葉이고 道의 末이며 入道次第的인 것이어야 하며, 모든 문학행위는 修己와 治人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어야 하며 주자학의 하위 종속물로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자학의 도입은 바로 주자학적 문학론의 도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자학적 문학론에 투철했던 주자학적 지식인들에 의해 「朱子學的 新文學」이 수립되게 되었다. 주자학적 지식인⁷⁾들은 그들의 주자학적 이념의 현실화를 기도했는데 이는 옛부터 전해오는 온갖 전통적인 현상에 대한 부정의를 의미하며 특히 문학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문학의 소재나 주제에 속했던 「토속적인 神」, 「山水의 靈」과 「佛敎」와 「老莊思想」에 입각한 제반 사실들을 배제하고 정감적이고 낭만적인 抒情조차도 폄하하여 기존의 모든 문학을 주자학적 문학론에 의해 극복하고자 했다.

고려말의 신흥 사대부와 접맥되어 있으며 15세기 중엽 정치의 일선에 등장하게 되는 사림파들은 그야말로 士요 大夫요 文人이었다. 그리하여 이조에 들어서 주자학적 문학론에 투철한 이들의 문학은 고려의 문학과도 다르고 18세기 이후의 문학과도 다른 양상을 뚜렷이 보여 주어 「士林派文學」이라 하여 구별짓게 되었다.

사림파문학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의 문학상에는 주목할만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자연에 대한 새롭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구이다. 원초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었지만 이 무렵의 강호자연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여 16·17세기에는 「江湖歌道」라고 부를만한 한 특질을 형성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연미가 발견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사림파문학과 강호자연과의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고 이들이 자연에서 추구하였던 진정한 자연미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사림파지식인들은 대개가 향리에 그들의 경제적 근거를 두고 정계에 진출하였으므로 그들의 강호자연에의 애착은 본능적으로 대단했으며 그들 문학의 중요 소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하나 사림파지식인들에게 강호자연의 애착을 가중시킨 것은 그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던 주자의 문학작품 가운데 武夷山 주변의 강호자연을 노래한 「武夷權歌」 10수⁸⁾에 대한 관심때문인데, 武夷權歌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주자의 시로써 사림파들의 강호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 이들 사림파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작품은 漁父歌이다. 어부가는 고려말에 중국의

6) 황패강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 지식산업사, 1982, p.259.

7)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p.9.

8)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p.5.

漢詩句 중에서 어부의 생활이나 강호의 한정에 관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으로 고려말·이조 초에 걸쳐서 사대부들의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일시 소멸되었는데 다시 15세기의 사림파의 등장과 때를 맞추어 사림파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림파문학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강호자연의 모습은 고려와도 달랐고 18·19세기와도 상이하다. 이는 확실히 사림파문학의 특별한 강호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림파문학에서 보여주는 자연을 보통 「관념화된 자연」 또는 「자연의 관념화」라고 말한다. 「자연의 관념화」란 자연의 유미적 형상을 거부하고 그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 -도(道)-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림파지식인들은 자연을 탐미의 대상으로 즐겼던 것이 아니라 주자학적 묘리가 구현된 「道體所寓」로 여기고 자연을 통하여 심성을 수양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호인식을 가진 사림파지식인들이 추구하여 발견했던 진정한 자연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림파들의 강호인식의 실상을 율곡⁹⁾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면, 강호를 보는 안목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目見而已」로 거저 별 뜻없이 보는 것이고 둘째가, 「深知山水之趣」로 자연의 미경을 깊이 터득하는 것이고, 셋째가 「知道體」로써 자연 속에 감추인 道體를 응시하는 것으로 이를 「眞樂」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강호인식은 율곡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퇴계를 위시한 사림파지식인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호자연에서의 이러한 知道體的 眞樂을 문학과 접맥시킬 경우 「武夷擢歌」와 「漁父歌」가 가장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栗谷¹⁰⁾은 또 강호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품을 「遺賢·隱遁·恬退·盜名」으로 분류했는데, 遺賢이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독선적 사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와서 나아가 行道하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백성을 제도하는 德을 품은 인물이다. 隱遁은 벼슬살이를 경시하고 세상사를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겨 潔身亡世를 일삼는 老莊的 귀거래를 뜻한다. 恬退는 지식의 한계를 느껴 물러나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지칭하며 盜名은 명예를 얻기위해 강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였다. 이에 의한다면, 사림파들이 회구했던 강호에서의 생활은 遺賢의 생활을 의미했으며, 그들은 주자학적 이념에 부합되는 '出'(정치에 나아가는 것)과 '處'(강호에 머물러 때를 기다리는 것)의 양면의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그들의 생활은 문학에서도 양면성을 갖게 하였으니, 관료적인 문학과 처사적인 문학이 동일인에 의해 생산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사림파지식인들은 자연에 머물러 자연 속에 감추어진 道體를 찾아내며 심신을 수양하는 것이 진정한 자연미이며, 이와 같은 遺賢의 생활이야말로 眞樂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16세기 사림파지식인들의 강호인식은 이전의 고려시대의 강호인식과도 달랐고 이후의 18세기 실학파지식인들이 보여 주었던 강호인식과도 다른 독특한 것이었다.

⁹⁾ 李 珣, 栗谷全書 卷十三, 洪恥齋仁祐遊楓嶽錄 跋, 一冊, p.271.

¹⁰⁾ 李 珣, 栗谷全書 卷五, 辭直提學疏, 一冊, pp.91~92.

Ⅲ. 龔巖 漁父歌에 나타나는 江湖認識

이조 시가문학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미의 발견」이며 이 자연미 발견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龔巖 李賢輔이다.

농암(1467~1555)은 연산군 4년(1498)에 등과하여 76세에 귀향할 때까지 대체로 순조로운 관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작부터 강호에 뜻을 두어 고향에 돌아가고자 여러번 上疏 乞骸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년에야 비로소 강호에 돌아가 그 樂에 흠뻑 취하여 살았다. 그가 노후에 기거했던 汾川은 수석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농암은 이곳에 묻혀 살면서 지금까지 세인의 이목에서 사라졌던 어부가를 우연히 손에 넣고 그 어부가에 깊이 심취하였다.

사림파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되었던 어부가가 만약 주자학의 수용과 함께 이루어 졌다면 주자학적 이념에 의해 건국되고 보다 이념화된 주자학적 지식인들에 의해 다스려지던 이조초에 왜 일시적인 소멸을 가져 왔는가? 이의 원인으로 최진원¹¹⁾은 이조의 양반계급과 고려의 사대부의 풍류의 차이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우성¹²⁾은 음악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고려시대에는 노래로 불리어지던 어부가의 唱이 노래부르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조양반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민홍¹³⁾은 고려말·이조초의 사대부가 어부가를 중시했지만 사림파지식인들은 어부가보다 무이도가를 더욱 중시했는데 이는 사림파지식인들이 어부가를 격하시켰거나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무이도가를 어부가보다 상위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필자¹⁴⁾는 고려말 사대부들에 의하여 불리어진 어부가는 이조의 건국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창업에 분주했던 훈구파사대부들이나 향리에서 아직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사림파지식인들에게 모두 주목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사라졌던 어부가는 16세기 사림파의 대표적 致仕閑客인 농암의 손에 들어가서 改撰을 보게 되면서 사림파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15·16세기는 기존의 훈구파에 대항하여 향리출신의 사림파가 정치 일선에 등장하는 시기이고 모든 분야에서 사림파적인 주자학적 변혁의지가 강력하게 진행되는 때이다. 문학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주자학적 문예의식에 투철한 사림파의 문예의식에 의해 관인문학적이었던 훈구파문학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문예의식이나 문학행위는 부정되었다. 농암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고있던 퇴계는 사림파의 문학론을 종합하여 체계를 세웠다고 알려졌는데 사림파문학의 확립기에 사림파지식인들의 최고 이념인 修己와 治人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퇴거한 농암이 어부가의 개찬에 어떤 강호 인식을 보였는가 궁금하다.

¹¹⁾ 최진원, “강호가도와 풍류”, 『성대논문집』 11집, 1966, p.37.

¹²⁾ 이우성, “고려말·이조초의 어부가”, 『성대논문집』 9집, 1964, p.26.

¹³⁾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p.55.

¹⁴⁾ 장선희, 『漁父歌 研究』,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82, p.18.

농암의 어부가 개찬이 완성된 것은 그의 나이 83세 때인데 이 개찬은 단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행해진 듯 퇴계와 이에 대한 여러 차례의 문답을 주고 받았다. 어부가 개찬에 대한 농암의 의도는 그 자신이 어부가 서문¹⁵⁾에서

第以語多不倫或重疊必其傳寫之訛此非聖賢經據之文妄加撰改一篇十二章去三爲九作長歌而詠焉
一篇十章約作短歌五闕爲業而唱之合成一部新曲非徒刪改添補處亦多然亦各因舊文本意而增損之

.....

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개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하는 어부가의 詩句가 베껴 전할 때의 잘못으로 인해 성현의 경전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성현의 경전의 글에 철저히 따르고자 한 것이었다. 위에서 말하는 경전이란 주자학인 도학의 지침서로 修己·治人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道에 이르는 방법이 되어야 했는데 사림파지식인의 사회적 위상이 확립되어 가는 때, 대표적 사림파지식인이었던 농암에게는 성현의 경전 글귀와 합치되지 않는 이전의 어부가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필연적으로 농암은 어부가를 개찬할 수 밖에 없었고, 창작동기는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성현의 경전에서 출처가 분명한 詩文들을 뽑아내어 이전의 어부가보다 훨씬 규범적이고 정제된 漢詩 집합의 어부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은, 농암의 어부가를 전해오는 어부가와 대비시키고 漢詩句들의 출처를 밝혀 본 것이다.

原 漁 父 歌

一. 雪鬢漁翁이住浦間^하야서
自言居水 | 勝居山이라^하느다
빈^하떠라빈^하떠라
早潮 | 纔落거를晚潮 | 來^하느다(唐 白樂天詩集)
지곡총지곡총어스^하와어스^하와
一竿明月이亦君恩이^하쌌다

二. 靑菰葉上애涼風이起^하켜를
紅蓼花邊애白鷺 | 閑^하느다
달드러라
洞庭湖裏애鷺歸風호리^하라
지곡총지곡총어스^하와어스^하와
一生蹤跡이在滄浪^하느다

三. 盡日泛舟煙裏去^하고
有時搖棹^하야月中還^하느다
이어라이어라
我心隨處自忘機호라
지곡총지곡총어스^하와어스^하와

龔巖 漁父歌

一. 雪鬢漁翁이住浦間
自言居水이勝居山이라^하느다
빈^하떠라빈^하떠라
早潮纔落晚潮來^하느다
至躬忽至躬忽於思臥
倚船漁父이一肩高로다(李仁老)

二. 靑菰葉上애涼風起
紅蓼花邊白鷺閑이라
달드러라달드러라
洞庭湖裏鷺歸風호리^하라
至躬忽至躬忽於思臥
帆急前山忽後山이로다(原歌 四의 4, 九의 4)

三. 盡日泛舟煙裏去
有時搖棹야月中還이라
이어라이어라
我心隨處自忘機라
至躬忽至躬忽於思臥

15) 李賢輔, 「龔巖集」 卷三, 漁父歌序文.

- 一江風月이趁漁船호두다
四. 萬事를無心一釣竿호요니
三公으로도不換此江山이로다……(宋載石屏)
돌드라라돌드라라
帆急호니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生來에一舸로趁隨身호라
五. 東風西日에楚江深호니
一片苔磯오萬柳陰이로다
이퍼라이퍼라
綠萍身世白鷗心이로다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隔岸漁村이兩三家로다
六. 一尺鱸魚를新釣得호야
呼兒吹火荻花間호라
빅세여라빅세여라
夜泊秦淮호야近酒家호라……(杜牧)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一瓢애長醉호야任家貧호라
七. 落帆江口에月黃昏커를
小店애無燈欲閉門이로다
돛디여라돛디여라
柳條애穿得錦鱗羅로다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夜潮留向月中看호리라
八. 夜靜水寒魚不食어를
滿船空載月明歸호노라……(宋僧 船子和尙)
빅미여라빅미여라
釣罷歸來에繫短篷호리라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繫舟唯有去年痕이로다
九. 極浦天空際一涯호니.
片帆이飛過碧瑠璃로다
아외여라아외여라
帆急호니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충지곡충어스와어스와
風流未必載西施니라
十. 一自持竿上釣舟호요므로
世間名利盡悠悠로다
- 鼓櫂乘流無定期라
四. 萬事無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라
돛디여라돛디여라
山雨溪風捲釣絲라……(宋詩)
至匆忽至匆忽於思臥
一生蹤跡在滄浪라……(原歌 二의 6)
五. 東風西日楚江深
一片苔磯萬柳陰이라
이퍼라이퍼라
綠萍身世白鷗心라
至匆忽至匆忽於思臥
隔岸漁村兩三家라
六. 濯纓歌罷汀洲靜……(原歌 十二의 2)
竹逕紫門을猶未關라
빅세여라빅세여라
夜泊秦淮近酒家로다
至匆忽至匆忽於思臥
瓦甌蓬底獨斟時라……(宋詩)
七. 醉來睡著無人喚……(宋詩)
流下前灘也不知로다……(宋詩)
빅미여라빅미여라
桃花流水鱸魚肥라……(原歌 十의 4)
至匆忽至匆忽於思臥
滿江風月屬漁船라……(原歌 三의 6)
八. 夜靜水寒魚不食거늘
滿船空載月明歸라
닫디여라닫디여라
罷釣歸來繫短篷호리라
至匆忽至匆忽於思臥
風流未必載西施라……(原歌 九의 6)
九. 一自持竿上釣舟
世間名利盡悠悠라
빅브터라빅브터라
繫舟猶有去年痕이라……(原歌 八의 6, 十二의 4)
至匆忽至匆忽於思臥
款乃一聲山水綠라……(原歌 十의 6)

이피라이피라

桃花流水鯪魚肥 ㅎ두다(唐 張志和)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款乃一聲山水綠 ㅎ두다(唐 柳宗元)

十一. 江上晚來堪畫處에

漁翁披得一蓑歸로다

돛더러라돛더러라

長江風急浪花多 ㅎ두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斜風細雨不須歸니라(唐 長志和)

十二. 濯纓歌罷汀洲靜커를

竹徑柴門猶未關이로다

서스라 서스라

繫舟猶有去年痕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스와어스와

明月清風一釣舟ㅣ로다

농암이 개찬한 어부가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생애를 보낸 致仕閑客답게 현실에 대한 번뇌나 갈등·풍자따위는 전혀 없다. 사람과문학의 화합기에 만족할만한 생애를 보낸 사람과지식인에게 비쳐지는 순연하고도 긍정적인 강호의 모습이 보일 뿐이다. 이러한 강호인식은 농암 개인의 강호인식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사람과문학이 보여주었던 한 특색이었다. 즉 사람과문학은 형이상학적인 주자학과 접맥되면서 「정치·사회」 등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가급적 배제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주자학은 新儒學이다. 유학의 새로운 모습일 뿐이다. 유학이란 본디 근본적으로 생활실천학 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 노장사상이나 불교와는 달리 현실에 직접 참여하여 道를 구현시키려는 것이 근본입장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러나 강호자연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出하여 평소에 신념했던 道學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지식인들의 문학에서 현실문제에 대한 언급이 될수록 회피되고 배제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민홍¹⁶⁾은 임란이전의 시대는 많은 모순 속에서도 소위 중세적 평화를 누렸던 시대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들이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침잠할 수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정치의 불합리와 사회적인 여러 마찰 등이 문학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사람과의 고려말 사대부와의 접맥관계에서 연유되는 것이라 파악하고 싶다. 즉, 이조의 건국에 참여한 훈구파사대부들이나 15세기 무렵부터 정치에 등장했던 사람파사대부들이나 모두 근본적으로는 당시의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정치와 사회의 기득권과 담당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¹⁶⁾ 이민홍, 「사람과문학의 연구」, p.200.

갈등따위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또한, 주자학이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道學으로 일관하다보니 실제적인 정치나 생활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무관심했던 경향들이 보이는 것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도 사림파문학은 주제나 소재면에서도 자연을 더욱 가까이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사림파 특유의 강호인식으로 말미암아 사림파문학의 한 특색이 되었던 것이다.

농암이 개찬한 어부가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림파문학의 특색은 개인의 서정적인 정서의 표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사림파문학에서 추구했던 자연은 관념화된 자연이라고 지적했다. 관념화된 자연이란 개별화되고 구체화되며 특수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연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도식화된 강호인식을 의미한다. 농암의 어부가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강호에 거하며 江湖之樂에 흠뻑 취하는 雪鬢漁翁만 드러나고 있다. 이 백발의 어옹은 누구여도 상관이 없으며 여기에 나타나는 강호의 생활 역시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관념화된 모습일 뿐이다. 즉, 농암만의 구체적인 체험이나 정서는 전혀 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암은 스스로 그의 어부가 서문에서 개별화되고 서정적인 특수체험은 배제하겠다는 개찬의도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원어부가에서 가장 개별적인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는 6·7·11장은 아예 삭제시켜 버렸다. 이는 강호자연을 「知道體」로 파악하여 성정의 순화를 위한 物我一體의 견지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주자학적 문학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漢詩에의 출처마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농암이 원어부를 입수하여 개찬했던 의도를 좇아 살핀 결과 농암이 보여주는 강호자연의 모습은 당시의 주자학적 강호인식에 그대로 합치되고 있으며 문학에 대한 인식 또한 「文以載道」적인 주자학적 문예의식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암은 이와같이 주자학적 강호인식과 문예의식에 의해 어부가를 개작한 이후로는 전에 즐겨하던 가사는 모두 버리고 오직 어부가에만 전념하였으니 가위 “傍人望之若神仙焉”¹⁷⁾이라 일컬을 수 있는 주자학적인 眞樂에 흠뻑 취하여 眞漁翁¹⁸⁾으로 생활하였다.

IV. 漁父四時詞에 나타나는 江湖認識

16·17세기는 사림파문학의 시대라고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림파의 주자학적 문학론은 많이 변질되고 쇠퇴되어 사림파문학은 소멸했다는 주장까지 있게 된다.

孤山은 사림파의 형성기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사림파시기의 말기이면서, 이조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임·병 양란을 전후한 변혁기에 생존하였다. 주자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¹⁷⁾ 李 滉, 「退溪集」卷四十三, 書漁父歌後.

¹⁸⁾ 여기의 眞漁翁은 주자학적 문학론에 의한 것으로 致仕閑客의 遺賢을 가리킨다.

유학자로 평생을 일관하면서 고산은 그가 신념으로 삼았던 주자학의 변모 및 붕괴과정을 체험하였으며 전쟁을 발단으로 한 기존의 정치·사회질서의 해체과정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겪으면서 정치가나 학자로서보다는 문인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의 주자학자는 곧 정치인이요 문인이었던 상황에서 그는 정치인으로는 불우했으며 학자로서는 쇠락해가는 구학문의 계승자로서의 입지의 불리함을 문학적인 역량으로 압도하였다. 고산의 작품은 「孤山先生遺稿」全六卷에 전해지는데 시조문학의 일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작품의 양으로는 漢詩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漢詩의 제작은 그의 평생을 통해 꾸준히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산의 漢詩는 여타의 사림파문학의 漢詩들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여 주는데 고산의 문예의식에 대한 파악은 그의 漢詩를 통하여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파악일 수도 있겠다.

고산의 문예의식은 17세기 사림파로서 지금까지의 사림파 문예의식이 고수되었고 한편으로는 脫朱子學의인 문예의식의 일면을 찾을 수 있어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러한 17세기의 탈사림파적 문예의식은 18세기에 들면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실학파문학의 발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산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의 미학적 관점이 아닌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추적되어 사림파문학에서 실학파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고산의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사림파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어지는 漁父歌의 새로운 창작인 漁父四時詞를 통하여 사림파의 강호인식의 변모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고산의 漁父四時詞 창작의도는 먼저 그의 〈漁父四時詞 跋文〉¹⁹⁾에서 찾아야 한다.

東方古有漁父詞未知何人所爲而集古詩而成腔者也諷詠則江風海雨生牙頰間令人飄飄然有遺世獨立之意是以龔巖先生好之不倦退溪夫子歎賞無已然音響不相應語意不甚備蓋拘於集古故不免有局促之欠也余衍其意用俚語作漁父詞四時各一篇篇十章余於腔調音律固不敢妄議余於滄洲吾道尤不敢翫附而澄潭廣湖片舸容與之時使人竝喉而相棹則亦一快也且後之滄洲逸士未必不與此心期而曠百也而相感也秋九月歲辛卯芙蓉洞釣叟書于洗然亭樂飢欄邊船上示兒曹

어부사시의 창작동기를 고산은 전해오는 어부가의 음향이 서로 응하지 못하고 말이 심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옛것을 모으는데 집착했던 연고(音響不相應語意不甚備蓋拘於集古)라고 지적하면서 첫째 말의 뜻을 넓히고(衍其意) 둘째 우리말을 사용하여(用俚語) 四時를 각 1편으로 하고 편마다 10장씩 총 40장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어부가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창작하였다. 고산이 보았던 어부가가 악장가사에 실려있는 어부가였는지 농암이 개찬한 어부가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위의 跋文에 숨겨있는 語義로는 농암의 어부가라고 보여진다. 농암의 어부가 개찬이래로 사림파지식인들에게 활발한 어부가의 전승이 있었고 농암의 어부가 개찬의도가 성현의 경전에 출처를 둔 시문들을 모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¹⁹⁾ 「孤山遺稿」卷之六 漁父四時詞跋文.

파생했던 폐단을 고산이 지적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고산은 그의 탁월한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어부사시사 40장을 만들어 내었다.

어부사시사는 기존의 어부가 뿐만 아니라 사림파문학의 다른 작품들과도 상이한 면모를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민홍²⁰⁾은 어부사시사가 탈주자학적인 요소를 보이면서 「文以載道」論에 입각하여 창작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하여 그 특징을 「物外閑適」의 서정양상의 일단이라고 밝히고, 물외한적이란 정치적 현실은 물론이고 속세를 벗어난 은둔적인 성격의 강호에서의 생활상을 노래하는 미학적 서정양상의 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행²¹⁾은 조선조의 시가들이 흔히 관념화되고 도식적인 강호를 노래하는데 비하여 어부사시사에는 강호의 삶이 아주 구체적인 심상으로 표현되어 관념적인 자연의 보편성이 극복되었다고 하였다. 조동일²²⁾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봄·여름·가을·겨울을 각기 10수씩으로 다루어 표현이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자취를 따른다는 관념적인 설명을 과감하게 청산했다고 하였고 조운제²³⁾는 어부사시사를 「文以載道」의 문학론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하고 이를 탈주자학적인 작품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들처럼 어부사시사가 정통적인 주자학적 문예의식과는 다른 강호인식을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림파의 「文以載道」적 문학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화된 시기이기도 하였고 학자로서보다는 문인으로서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고산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계된다. 고산은 당시의 여타 문인들처럼 문인이기 전에 修己治人하는 유학자임을 농후하게 드러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도학적 주자학자로서보다는 문인으로서의 성가가 더 높은 것을 보면 문인으로서의 역량이 학자적 역량을 능가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는 이미 문학이 가지는 서정적이면서도 탐미적인 오락적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文을 道에 들어가는 방법정도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은 듯 하다. 왜냐하면 어부사시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載道的인 대상이 아닌 유미적인 대상으로 즐기면서 보편적인 자연이 아닌 개별적인 자연으로 주관화시켜 개성적인 서정을 노래한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개성적인 서정이란 사림파 지식인들이 지녔던 사물에 대한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느낌이 아니라 집단적·관념적 서정의 한계를 극복한 특수하고도 개인화된 정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자연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고산에게 특별한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주변의 구체화된 자연이다. 곧 어부사시사에 등장하는 자연물은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고산의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인식에 근거해 있어 다른 사림파 문학작품들과는 달리 사림파 고산의 작품이라기보다는 17세기 후반기의 한 개인의 작품적 성격을 농후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²⁰⁾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p.227.

²¹⁾ 김대행, “어부사시사의 외연과 내포”,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p.33.

²²⁾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p.274~275.

²³⁾ 조운제, 「한국시가가사강」, 을유문화사, 1960, p.341.

어부사시사 40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다의 그림같은 풍경과 실제의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때의 어부란 고기잡이를 생활수단으로 삼는 漁夫가 아니라 미학적 유희의 수단으로 삼는 漁父를 말하는데 이러한 유희적 관점의 관찰이기 때문에 보다 문학적인 탐색이 가능했을 것이다. 전해오는 민요속의 漁夫歌들에서는 고고하고 한가로운 생활의 여유를 노래하기보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자연과의 대결속에 벌이는 노동을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수확을 획득하려는 실제적이고도 즉생활적인 감정의 표출이 대부분이며 주위의 자연은 순복하거나 타협해야하는 외경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고산에게 있어서 바다는

날이 덩도다 물우희 고기 떠다
 닷드러라 닷드러라
 굽머기 들식셋식 오락가락 흥노고야
 至躬忽 至躬忽 於思臥
 낮대논 주여잇다 濁酒瓶 서릿노나

(春2)

처럼 天理流行의 경건한 대상이 아니라 고기를 낚아서 술안주를 구하는 장소 정도의 친근하고 오락적인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자연물에서 道體를 보거나 천리의 유행을 파악하는 따위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도학적 유희는 찾을 수가 없다.

고은 벌티 짝안논디 물결이 거름긔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두라 낙시를 노홀일가
 至躬忽 至躬忽 於思臥
 濯纓歌의 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春5)

고산에게 있어서 고기는 관심밖의 것이다. 어부의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와같은 자연의 묘사가 직접적이고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수가 있겠는가? 어부사시사에 나타나는 강호자연은 대부분이 위의 경우들처럼 자연의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에서 표출되는 것인데 굳이 관념화된 강호인식이 보이는 것을 꼽는다면 여음을 빼 전체 120구 중에서 다음 29수에 한정될 뿐이다.

三公을 불리소나 萬事를 생각하랴 (春6-⑤)
 落紅이 흘러오니 桃源이 갖잡도다 (春8-③)
 人世紅塵이 언메나 了렸노니 (春8-⑤)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잊더하리 (夏4-①)
 吳江의 가자하니 千年怒濤 슬플로다 (夏4-③)

楚江의 가자흐니 魚腹忠魂 난글세라 (夏4-⑤)
 鶴髮老翁 만나거든 雷澤讓居 效則히자 (夏5-⑤)
 款乃聲中에 萬古心을 귀 뉘 알고 (夏6-⑤)
 모피를 땀다흐라 蒼蠅과 엇더흐니 (夏8-③)
 다만 혼 근심은 桑大夫 드르려다 (夏8-⑤)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秋2-⑤)
 鳳凰樓 渺然흐니 淸光을 놀을 줄고 (秋7-③)
 玉兔의 먼진 藥을 豪客을 먹이고자 (秋7-⑤)
 乾坤이 제공인가 이거시 이드메오 (秋8-①)
 西風塵 묻 미즈니 부체흐야 머엇흐리 (秋8-③)
 드론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흐리 (秋8-⑤)
 釣船이 줍다흐나 浮世과 언더흐니 (秋9-③)
 白雲이 좃차오니 女蘿衣 브겁고야 (秋10-⑤)
 瀟湘洞庭은 그물이 언다흐다 (冬2-③)
 仙界나 佛界나 人間이 아니로다 (冬4-⑤)
 無端호 된 바람이 헝허 아니 부러울까 (冬5-⑤)
 자라가는 가마과 몇나치 디나거니 (冬6-①)
 鵝鴨池를 누터서 草木漸을 심둔던고 (冬6-⑤)
 물근의 외로운 술 혼자 어어 석석호고冬8-①)
 머흔 구름 恨티마라 世上을 그리온다 (冬8-③)
 波浪聲을 厭티마라 塵喧을 막노또다 (冬8-⑤)
 滄洲 吾道를 네브터 날런더라 (冬9-①)
 七里여홀 羊皮 옷슨 귀 언더 흐니런고 (冬9-③)
 三千六百 낙시절은 손고본제 엇더던고 (冬9-⑤)

어부사시사에 이르면 사립파문학의 강호자연에 대한 관념적 자연미는 거의 극복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조 문학의 강호인식은 근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부사시사에서도 위에서 본 것처럼 관념적 강호인식이 잔재해 있으며, 고산의 다른 작품들에는 역시 주자학적 강호인식이 짙게 깔려 있으니 관념적 자연인식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알려지는 五友歌 등도 이 고산의 작품이다. 五友歌에 대해서 조운제²⁴⁾는 오우가는 고산의 시조 중에서도 유명한 것인데 시조도 이까지 오면 갈 곳까지 다 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며 고산 시조의 최고봉이라고 하였고 최진원²⁵⁾은 고산은 오우가의 水·石·松·竹·月에서 不斷·不變·不屈·不欲·不言之 규범성을 찾았는데 이러한 산수의 낙을 찾아내는 것-자연의 의미를 찾아 내는 것-이 이른바 「자연미의 발견」이다 라고 하였으며 윤성근²⁶⁾은 자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탐구자의 관점은 마지막 도달점으로 구도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 속에서 인간적 윤리를 발견하려는 입장이다. 윤선도가 구도자의

24) 조운제, 「한국시가사강」, p.338.

25)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대출판부, 1977, p.42.

26) 윤성근, 「윤선도 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p.180.

관점에서 본 자연이 「오우가」에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여 오우가의 도학적 관점에서의 자연미의 포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산의 문학작품에는 고산이 교육받고 교수하고자 했던 주자학적 문예의식과 주자학적 문학론의 쇠퇴를 의미해 주는 개별적인 미학적 정서의 표출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문학상에 서 있는 그의 위상이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에 위치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산의 어부사시사 창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의는 농암 어부가가 漢詩句들을 모으는데 집착했던 이유로 파생되었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말로 창작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어부사시사를 대하면, 기존의 어부가들이 작은 강가에서 거닐면서 어부의 흥내를 냈던 느낌을 받는데 비해 갑자기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어촌과 어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느낌에 접하게 되며 그러한 환골탈태가 우리말 사용으로 인하였다는 데에 감격하게 된다. 고산은 漢詩의 한계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은 인식을 하였던 것 같다. 하여간, 어부사시사의 우리말 사용의 성공에 기인하여 그때까지 漢詩와의 경쟁관계 속에 우위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시조가 마침내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고산의 우리말 사용의 탁월성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 있으니, 조운제²⁷⁾는 고산은 다른 작가에 특출하여 실로 시가로 인하여 한국어의 미를 발견하고 그를 그의 시가에 직접 시험해 보았다고 하였고, 박성의²⁸⁾는 진실로 그는 자연의 미를 발견함과 함께 한국어의 미도 발견하였고 한국어를 예술적으로 순화 양양시켰다고 하였다. 고산이 그의 어부사시사에서 농암 어부가의 漢詩句들을 어떻게 우리말로 환치시켜 놓았는지 살펴보면

龔巖 漁父歌

· 早潮纔落晚潮來 ㅎ는다 (1-①)

· 靑菴葉上애涼風起 (2-①)

· 紅蓼花邊白鷺閑 (2-②)

· 帆急前山忽後山이로다 (2-⑥)

· 萬事無心一釣竿 / 三公不換此江山라 (4-①, ②)

· 隔岸漁村兩三家라 (5-⑥)

· 一片苔磯萬柳陰이라 (5-②)

孤山 漁父四時詞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미러온다. (春1-④)

-마람넙희 북람나니 篷窓이 서늘코야 (夏3-①)

-글머기 들식셋식 오락가락 ㅎ는고야 (春2-③)

-압외히 디나가고 뵈외히 나아온다 (春3-⑤)

-三公을 불리소나 萬事를 생각하랴 (春6-⑤)

-어촌 두어집이 닛속의 나락들락 (春4-③)

-萬柳綠陰 어된고되 一片苔磯 奇特ㅎ다 (夏5-①)

²⁷⁾ 조운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60, p.341.

²⁸⁾ 박성의, 「孤山詩歌」, 정음사, 1957, pp.144~149.

처럼, 상투적이고 진부한 漢詩句가 전혀 다른 청신하고도 신선한 감흥으로 바뀌어 전달되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리말이 가지는 미묘한 美感이 충분히 활용되어 생동감있게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우리는 고산이 사림파적 강호인식이 절정에 달하였으며 동시에 서서히 변모되기 시작했던 17세기에 활약했던 사림파문인으로서 사림파적 강호인식과 문예의식을 확고하게 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사림파적 강호인식과 문예의식을 보여주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으니, 그는 결국 사림파문학의 변경에서 활약하며 다음 실학파문학으로의 문을 여는 이행기의 과정에 처하였으며 우리 국문학상에서 고산의 위치는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통로를 마련해 준 선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사림파문인들의 문예의식의 변모에 따라 나타나는 강호인식의 양상을 어부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림파 문학의 확립기인 16세기에 사림파지식인의 대표적 致仕閑客인 농암의 어부가에 나타나는 강호인식은 주자학적 문학론에 그대로 합치되고 있었으니, 강호자연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道를 담고 있는 관념화된 자연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추구했던 자연미 역시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道를 찾아내는 것을 진정한 자연미라 하였다.

사림파문학의 난숙기이며 붕괴기이던 17세기에는,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농암의 어부가와 다른 강호양상을 드러내었다. 어부사시사에 나타나는 강호자연은 관념화된 자연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체험적인 강호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강호인식의 변화는 주자학적 문학론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산은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 주자학적인 구도적 문예의식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17세기의 사림파문학의 숨길 수 없는 갈등의 양상이다. 이러한 갈등의 이행기를 거쳐 18세기에는 실학파의 문학이 등장하게 되므로 17세기 사림파문학에 나타나는 강호인식은 주자학적 강호인식임과 동시에 탈주자학적 강호인식을 보여주는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산은 17세기 사림파 문학의 말미를 장식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대 문학의 도래를 예고하는 실학파 문학의 선각자였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김동욱, 「韓國歌謠의 研究」, 三友社, 1976.
2. 고산연구회편, 「孤山研究」 창간호, 전남대출판부, 1987.
3. _____, 「孤山研究」 제2호, 전남대출판부, 1988.
4. 沈浩澤外, “한국역대문인층의 성격과 작가의식 연구”, 「한국학논집」 제14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7.

5. 유명중, 「韓國思想史」, 이문출판사, 1985.
6. 윤성근, 「윤선도작품집」, 형설출판사, 1982.
7. 이가원외,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8. 李 珥, 「栗谷全書」,
9. 李 滉, 「退溪全書」,
10. 李賢輔, 「巽巖集」
11. 이민홍,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7.
12.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13. 장선희, 「漁父歌 研究」,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82.
14. _____, “이현보 어부가의 시사적 위치에 관한 고찰”,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3집, 1988.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16. 조윤계, 「한국서가사강」, 을유문화사, 1960.
17. 진동력, “어부의 생활을 읊은 시조와 가사고”, 수도사대논문집, 1971.
18. 한국철학회편, 「韓國哲學史」 中卷, 동명사, 1987.
19. 황패강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20.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The Sa-Rim School's Recognition of the World in the 17th Century in O-Bu-Sa-Si-sa

Chang Sun-Hee

Departmen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ctive phase of the literary men, the Sa-Rim school, who work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medieval literature to modern literature in Korea, through the pursuit of their literary senses and the variational aspects of their recognition of the world in their works.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variational aspects of their recognition of the world in some fisherman's songs, which are highly valued as the Sa-Rim school's important works,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school.

The poet's literary senses in O-Bu-Ga by Nongam, Lee Hyon-Bo, who was a conspicuous hermit in the 16th century when the literature of the Sa-Rim school was firmly established, coincide with the doctrines of Chu-Tzu which would embody the truth through literature, and also his recognition of the world is expressed as the nature ideational and normative.

O-Bu-Sa-Si-Sa by Gosan, Yun Seon-Do, who accepted the doctrines of Chu-Tzu and stuck to them in the 17th century, when the literature of the Sa-Rim school attained its highest stage of prosperity and simultaneously fell into its decay, shows on the contrary, in most parts of the work, the poet recognizes the world as the nature individual, concrete and emotional, shows at the same time he has many literary factors seceded from the doctrines of Chu-tzu.

This fact tells us that Gosan played the bridging role between the latter period of the Sa-Rim school and the next literary generation, through his masterpiece, O-Bu-Sa-Si-Sa.